



## 방기선 국무조정실장, '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' 참석

- 우크라이나의 자유·평화·번영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와 역할 재확인 -

□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.15(토)-16(일) 정부 수석대표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된 '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'에 참석했다.

□ 방 대표는 6.16(일) 회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으며, 특히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발표한 포괄적 지원패키지인 '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\*' 이행을 통해 다방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오고 있다고 했다.

\* '23.7월 한-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계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▲안보지원 ▲인도지원 ▲재건지원을 포괄하는 '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'를 발표하고 후속조치 이행 중

○ 아울러,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생산과 수출이 어려워지고 세계 식량안보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농업 역량 증진, 제3세계 식량위기국 지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음을 소개하면서, 앞으로도 관련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.

□ 또한, 방 대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독일, 포르투갈, 멕시코 등 주요국 인사들과 우크라이나 평화 구축 및 재건 관련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.

□ 이번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\*에는 57개국 정상급 포함 총 100여 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**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공동성명\*\*을 발표했다.**

\*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(Summit on Peace in Ukraine)

-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모색하는 정상회의로 스위스가 주최
- 평화공식 10개항 중 원자력 안전, 식량안보, 포로 및 강제이송자 석방 등 3개 분야 논의
- 회의 결과문서로 '평화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성명' 발표

\*\* 정상회의 공동성명

- (명칭) 평화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성명
- (목적)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기초한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항구적인 평화로 향한 고위급 대화 증진을 위해 이번 정상회의 개최
- (의제) ▲우크라이나 원전은 우크라이나와 국제원자력기구(IAEA) 원칙 및 감독 하에 안전하게 운영 ▲자유롭고 완전하며 안전한 상업적 항행과 흑해 및 아조우해 항구에 대한 접근이 중요 ▲모든 전쟁 포로는 전면 교환을 통해 석방
- (향후 절차) 상기 분야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밟으며 모든 당사국을 연계

□ 우리 정부는 이번 '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'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고,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시 언급한 **우크라이나의 자유, 평화, 번영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와 역할을 다시금 명확하게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.**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팀 장 김진환	044-200-2136
	외교안보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박동현	044-200-2133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